

사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이며 백두산대국의 높은 존엄과 영광의 기치이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적권위와 불패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어머니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17회를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뜻깊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어머니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걸어온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은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이었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영웅적위훈을 새겨온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고있으며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자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로동당을 우리 시대의 가장 로속하고 세련된 정치집합부로서 강화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신 회색의 정치원로이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력사는 반세기를 헤아린다.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사는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으로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기적과 변혁을 안아온 영광스러운 력사로 빛나고있다.

특히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총책을 지니시고 우리 당과 혁명을 이끌어오신 력사는 주체의 당건설사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 나날은 력사의 생존길을 헤쳐온 사회주의운동의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고 제국주의반동들과의 첨예한 정적군사적대결속에서 총격적인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난 복잡다단한 년대였다.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우리 당이 자기의 혁명적정적책을 뜻깊이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없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올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진로를 밝혀주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순간의 침체와 답보없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한 전거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던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추호의 동요도 없이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며 주체 100년대를 사회주의호전과 부강조국건설의 자랑한 승리로 결속할수 있었다.

우리 당과 혁명을 령도하여오신 장구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 인류사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거대한 공헌으로 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적당건설의 거장으로, 사회주의정치원로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시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다함없는 존경을 받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것은 한평생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의 분출이였으며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의 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수명의 사상체계와 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당이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지면 첫째도 둘째도 수명의 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것이 사회주의운동사가 새겨주는 철리이다. 그 어느 당도 제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이 중대한 위업을 력사상 처음으로 빛나게 실현하신분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이시다.

전당김일성주의회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우리 당을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순결체, 행동의 통일체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공교성에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한 덩어리를 이루고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것,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건설령도의 전 기간 구현하여오신 정치철학이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지지도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인민적령도의 승고한 서사시로 빛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인민들이 당의 인덕정치, 팽폭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게 되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 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고 전당이 수명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사상과 로선,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확립된것은 주체의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이다.



수명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총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정적은 절대불변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유운을 당의 강령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김일성동지의 당,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다. 수명의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전무결하게 갖춘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결출한 령도자이시다. 인민은 사회주의의 기초이며 사회주의집권당의 운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패는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뉴대의

혁명의 강유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 회색의 정치가이시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며 장군님께서 일관하게 구현해오신 정치리념이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우리 당의 혁명령도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의 기치를 전진하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 끊임없는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수명의 군대, 당의 군대로 역세계 키워진본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며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민대단결을 이룩하시어 당과 혁명대오의 정예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다. 모든 당사업을 선군혁명로선관철로 지향시키고 전당에 인민대중의 화신정치사업방법과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이 차넘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전투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다.

선군혁명의 정치철학모부,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위용과 전투적위력은 준엄한 혁명실전에서 뚜렷이 입증되었다. 우리 조국이 치열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변천변승을 이룩하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추구처오를수 있었던것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우리 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자가 있었기때문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강성국가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울리고 최첨단과전,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켜올린 우리 당의 당대한 배짱과 탁월한 령도력은 오늘날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쳐주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력사는 오늘날 즐거차게 흐르고있다.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진행해나가며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는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당의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인민대중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전통이 주체혁명의 새시대로도 꽃피어가고있다. 우리 당이 당세도강화를 지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기본고리로 틀어쥐고나가고있는것도, 사상사업을 중시하고 인민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어있다.

지금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전략과 새로운 병전로선을 비롯한 독자적인 사상리론들을 제시하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이끌고있다. 인민군대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들에게, 예를, 제국을 비롯한 문명국건설의 여러 부문에서 선구자, 기수가 되도록 내세워주신 인민군대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전체 인민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고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오늘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고있다. 그 누구도 감히 속불수 없고 건드릴수 없는 자주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존엄높은 공민으로 사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꿈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생산기지가 도처에 일떠서고 철령이래 사파마다와 같은 새로운 사회주의선경들이 연이어 펼쳐지고있으며 당의 은성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에서 평범한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우리 당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위대한 장군님의 위업과 유운을 끝까지 충실할것이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배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해나갈것이다. 오늘 우리에게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하고 혁명의 불꽃을 최후승리의 평마루에 높이 휘날려야 할 성스러운 영예로운 임무가 지어져 있다.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첨예하며 방대한 과업들이 나서고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 우리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백전백승의 당, 조선로동당의 령도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어머니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장군님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절절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이며 장군님의 유운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빛내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성세, 방패가 되어야 한다. 우리 당을 수명결사투위의 일심체,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철결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에 한목소리로 말하고 하나와 같이 움직이며 당의 방침과 결정,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 혁명적규율과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선군조선의 새로운 병전로선을 위하여 투쟁에 천만군민을 총출력, 총발동시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애국, 애민의 승고한 넋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며 뿌려놓으신 만복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추렴지게 하여야 한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위전에서 발휘되고있는 인민군대의 창조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경제강국, 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시대정신, 조선속도를 창조하여야 한다. 내외반동일세력들의 악랄한 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기치높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이룩하여야 한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고무해주시고 조선로동당의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가 천만군민을 새로운 승리에 이끌고있다.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자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사상과 위업을 총직하게 받들어 주체혁명의 새로운 100년대를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어나가자.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며 폭풍쳐 내달린다

북창 철도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

제1선참호에서 울리는 돌격구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 같이 떨쳐일어나 돌볼을 가리지 않고 기어오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불이 달렸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올레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북창철도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마다에 거대한 투쟁의 불길 지펴졌다. 탄광들의 저탄장상을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통해 때를 옮겨서라도 전력생산의 숨결이 순간도 멈춰서지 않게 하자. 이런 결심으로 순간순간을 불태우며 북창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9월 한달동안에 전달에 비해 5만 5700여 t의 화력탄을 더 수송하는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벌어지는 돌격전의 제1선참호에서는 중앙과 철도성의 일군들, 이곳 철도분국일군들의 힘찬 돌격구령이 울리고있다. 그들의 모습은 불타는 전호에서 손에 총을 들고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전격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일군들의 위치는 사무실이 아니라 들끓는 현장이다. 그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일군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기관차, 화차수리틀 불꽃나는 전투가 벌어지는

기관차와 객차에 가보아도, 북창역의 사령실에 서보아도, 탄광들과 발전소를 퍼즐처럼 있고있는 철길우에 서보아도 제일먼저 눈에 띄는것이 바로 일군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두 줄기 궤도우에서 수송조각과 지휘관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다. 기관차와 화차의 수리정비,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자재들을 알선시켜며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밤에 떨어진 불을 끄는 식이 아니라 먼 앞날까지 내다보며 모든 일을 창조적으로 한다.

이것이 화력탄 수송을 위해 한도습되어 떨쳐나선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열념이며 제1선참호의 숨결이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때로부터 한달 남짓한 기간 북창철도분국의 중요철길구간들은 질적속면에서 완전히 새로와졌다. 오늘뿐 아니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통이고 작정하고 실천하고있는 중앙과 철도성의 일군들, 이곳 북국일

군들의 투쟁기풍과 본래로 하여 철길강도는 날마다 개선되고있으며 실용성과 화차보장에 서도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후방사업은 곧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은 수송조각과 지휘관이나 수송전사들의 생활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기되는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어주기 위해 아글라글 노력하고있다. 북창역가까이에서는 이곳 수송전사들의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 덩치큰 합숙건물이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외형뿐 아니라 내부설계도 특색있다. 이 합숙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처럼 번듯하게 꾸리자는것이 철도성 일군들이 내세운 높은 목표이다.

지금 이 시각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저탄장에는 우리의 미더운 탄부들과 수송전사들의 과감한 협동작업으로 시간이 다르게 석탄산이 쌓이고있다.

그 석탄산은 전력출산을 위해 펼쳐나선 북창의 대동력기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고있다. 과감한 공격적의 제1선참호에는 일군들이 자기가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사색하고 실천하는 신평가들이 있어 화력탄수송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충성



기술혁신이 열어가 는 돌격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적극 늘이고 철도운수를 비롯한 교통운수문제를 결정적으로 풀며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해나가기야 합니다.》

북창철도분국에서 날에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혁신적인 수송성과속에는 화력탄수송에 필요한 화차보장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투쟁을 벌이고있는 북창객차대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깃들여있다.

이곳을 찾은 우리는 화차보장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기술혁신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이곳 로동계급의 지역생생의 정신을 엿볼수 있다. 그들은 올해에 들어와 자체로 제작한 연신기로 용접봉심선을 뽑아 그것에 비해 3배이상이나 되는 용접봉을 생산함으로써 화차수리에 이바지하고있다.

이들이 건설한 용접봉생산기지를 돌아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요구되는 화차를 무조건 보장하려는 의지가 깃들여있다.

이것은 바로 한몸이 그대로 레루가 되고 침묵이 되어서라도 화력탄수송을 순간도 중단시킬수 없다는 결사투쟁의 정신이었다. 수리대에 온갖 열정을 쏟고 있는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당의 명령이 어떤 결사의 실천으로 실현되는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 여러달이라는 시일이 단 17일로 단축하며 두 줄기 궤도에 바친 그들의 발을 안아온 밑거름이었다.

북창철도분국 체색소대의 전투원들은 10여명밖에 되지 않는 로력으로 9월 한달동안에 총생산에 비해 1.5배나 되는 돌을 채취해냈다. 손에 피가 흐르도록 정맥을 틀어잡고 합마를 휘두르며 한m 또 한m 돌

3배로 높아진 용접봉생산능력

화차수리라고 하면 용접수리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건설한 용접봉생산기지를 돌아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요구되는 화차를 무조건 보장하려는 의지가 깃들여있다.

이것이 건설한 용접봉생산기지를 돌아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요구되는 화차를 무조건 보장하려는 의지가 깃들여있다.

이것이 건설한 용접봉생산기지를 돌아보면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요구되는 화차를 무조건 보장하려는 의지가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신행부,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전력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일약

《대동력기지를 향하여 전속으로!》

《붉은기》 4049호를 타고

이 줄지어달리는 모습들도 언뜻 언뜻 지나간다.

《내리막 주의-》

《내리막 주의-》

앞을 감시하던 기관조사와 제동변을 당기며 속도를 늦추는 기관사의 긴장한 목소리이다. 어느덧 기관차는 어려운 내리막구간과 평지길을 지나 남덕역에 도착한다.

기다려가나 한듯 석탄을 무드기 실은 두대의 화차가 열차사령의 지시에 따라 더 달린다.

《용-철적-》

조국의 숨결을 더해주는 힘찬

것은 아니었습니까?》

동정한 일군의 말이다.

그들의 마음인양 석탄을 가득 실은 꼬리진 화차행렬을 단 기관차는 남덕역을 지나 제남역으로 향한다.

우줄우줄 높이 솟은 산봉우리들을 배경으로 저탄장마다 높이 쌓인 석탄산이 보이고 석탄수송에 나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줄지어달리는 모습들도 언뜻 언뜻 지나간다.

《내리막 주의-》

《내리막 주의-》

앞을 감시하던 기관조사와 제동변을 당기며 속도를 늦추는 기관사의 긴장한 목소리이다. 어느덧 기관차는 어려운 내리막구간과 평지길을 지나 남덕역에 도착한다.

기다려가나 한듯 석탄을 무드기 실은 두대의 화차가 열차사령의 지시에 따라 더 달린다.

《용-철적-》

조국의 숨결을 더해주는 힘찬

박동처럼 많은 화차를 단 기관차는 여러 역을 지나 어느덧 북창역을 가까이하는데 차장님머로는 열을 흘려내리는 땀을 흘리며 손을 흔들며주는 철길일군의 모습이 보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철길보수와 정비를 하느라 항상 수고가 많은 철길원들입니다. 우리 기관사들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달리는 심정으로 일하고있습

니다.》

북창철길소대의 철길원들을 가리키며 기관사가 하는 말이다.

그렇다. 이런 애국충정의 불씨들이 모이고 합쳐져 석탄중송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는 것이 아닌가.

당의 전투적호소에 결사의 실천으로 화답하내신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인가 화력탄수송물자의 기적소리는 더욱 높은 의미로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전 혁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기적의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 한몸 레루가 되고 침묵이 되리

북창 철길 대에서

투원들은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인민사랑의 승교한 뜻 전하는 과학연구기지

얼마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과학원 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1백을 맞으며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축산은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생산물과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납액,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천m²의 연건축면적에 아담하고 산뜻하게 단장된 기본생산과 보조생산, 버섯재배시험장과 소담한 버섯조각틀로 장식된 야외 휴식장을 갖춘 연구소는 마치 한몸의 그림을 현상해 하였다.

소장 박사 리선희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중앙홀에 들어선 우리의 눈앞에 자강도의 어느 한 버섯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안목을 담은 전광사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러러볼수록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려우며 우리는 선뜻 발걸음을 옮길수가 없었다.

《지금도 정말 쫓판 같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이런 훌륭한 연구소에 일하는 것만도 파란만장인데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보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었으니 이 가슴이 풀어오르는 경정을 어떻게 터쳐놓으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무엇이든지 없으면 어떤 위대한 연구자들의 각별한 사랑속에 발전해온 우리 연구소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과 오늘도 종합적이던 현대적인 연구기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습니니다.》

국가 과학원 중앙 버섯 연구소를 찾아서

우리는 먼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1층 연구소 도시설에 들어섰다.

현제적으로 꾸려진 이곳에서는 연구소의 과학자들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버섯재배기술자들이 희망에 따라 강의를 받고 있고 각종 기술자들도 봉사받을수 있다.

승업한 감정에 휩싸여 전자도시설을 들어보는 우리에게 소장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우리들에게 버섯연구 및 재배와 관련한 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는것과 함께 단위에서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현대적으로 꾸축된 연구소내망을 통하여 과학자들이 현실에서 멈춰서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하고 연구소를 찾아오는 전국의 버섯기술자들과 재배공들께도 기술보급을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어 공기사와를 거쳐 무궁화, 무진화화 실원된 2층의 여러 실험실들도 돌아보았다.

공기를 소독하고 정화하는 특수한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유전자 실험실과 집종실, 배양실을 비롯하여 실험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여러 실험실들마다에서 서 보드 우수한 품종의 버섯을 육성하기 위해 창조의 무수함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과학자들의 피나는 노력도 엿볼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버섯연구사업에 한평생을 바쳐가고있는 실장 공훈과학자 부교수 신명명동무도 만나볼수 있었다.

《균을 다루는 버섯연구사업

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모든것이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에는 환경조건이 잘 보정되지 못해 연구사업에서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한번 해야 할 실험도 여러번 반복했고 또 그러다보니 연구성과도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모두 옛말로 되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상대로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현대적인 실험기구들과 장비들이 그치지 않고 이어 실험실들에는 배 품종들을 간별할수 있는 유전자분석장치와 전기영동장치 등 없는것이 없었습니다. 돌아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버섯과학의 세계로 절로 이끌여가는 희한한 곳이었다.

우리의 걸음은 2차중공당이 형성사에서 멈춰서지 않았다.

전국에 중공과 제대병어리들을 원만한 보장할수 있는 도래가 튼튼히 갖추어진 이곳에서는 생산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혼합기, 운송기, 기질주입기를 비롯한 기계들이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속에 재배병어리들이 줄지어나오는 풍경이 펼쳐졌다.

지난 시기 손로동으로 한달동안에 생산하던 양을 2~3일이면 얼마든지 보장할수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우리는 버섯재배시험장에도 둘러보았다.

연구소의 일군인 윤병성동무는 이곳 버섯재배시험장은 온도 특성이 서로 다른 버섯품종들의 생물학적으로에 맞게 저온버섯장, 중온버섯장, 고온버섯장

로 나누어졌었다. 뿐만아니라 온도, 습도, 탄산가스농도, 빛조건들을 각이하게 요구하는 버섯 품종들의 특성에 맞게 모든 환경을 종합조성에서 실시간적으로 감시하면서 자동적으로 조절하게 되어있다. 자랑스러운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이곳 버섯재배시험장에서는 평지버섯, 버섯버섯, 고습도버섯을 비롯하여 수많은 버섯품종들을 품종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공업기술을 더 높은 수준에서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충실히 꽃피우시려 몸소 현대적인 버섯연구소건설을 발기하시어 선군경도의 그 바쁜신속에서도 설계와 시공,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주는 문제에 이르러까지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가지치기를 주시였을뿐아니라 인민들의 식생활이 더 윤택해질 그날을 그려보시며 연구소의 이름도 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참으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주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력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겁고도 위대한 헌신과 애정들이 줄지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일떠선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가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전하는 영예로운 일터로써 더욱 빛을 뿌린것이였다.

우리는 버섯재배시험장에도 둘러보았다.

연구소의 일군인 윤병성동무는 이곳 버섯재배시험장은 온도 특성이 서로 다른 버섯품종들의 생물학적으로에 맞게 저온버섯장, 중온버섯장, 고온버섯장

장강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세멘트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정,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만부하를 철도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9월 중순까지 3.4분기 세멘트생산계획을 120%로 넘쳐수행한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공장에 많은 석탄과 수백m²의 매우 그리고 팔자를 보정해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동지적의리를 지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동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하는 미풍이 그 어디서나 아름답게 꽃피고있다.》

일마에 있는 일이다. 함흥시 성천강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영예로운 일터로써 더욱 빛을 뿌린것이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10명여의 영예로운 일터로써 더욱 빛을 뿌린것이였다.

구역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10명여의 영예로운 일터로써 더욱 빛을 뿌린것이였다.

증산의 불길 타오른다

장강세멘트공장에서는 지금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1개월분이상 확보해놓은데 맞게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현재 세멘트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뛰어오르고있다.

지대한 김광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뜻깊은 올해 건설에 요구되는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할드문데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 원시적업면의 로동자들은 석회석생산을 늘이면서 파쇄, 분

공정에서는 지금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1개월분이상 확보해놓은데 맞게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세멘트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현재 세멘트생산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뛰어오르고있다.

지대한 김광남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는 뜻깊은 올해 건설에 요구되는 질 좋은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할드문데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세멘트생산의 첫 공정을 지켜 원시적업면의 로동자들은 석회석생산을 늘이면서 파쇄, 분

리용하여 저열탄의 연소효율을 극대화하여 원시적업면의 로동자들은 석회석생산을 늘이면서 파쇄, 분쇄비율을 만부하로 돌려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고있다. 소성로들의 로동자들은 소성로를 기술규정과 표준조각법대로 운영하면서 세멘트 크랑카생산을 매월 120%로 넘쳐수행하고있다. 완성작업면의 로동자들도 설비리용률을 높이면서 질 좋은 세멘트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무작업면의 로동자들은 지역생생의 투쟁기풍으로 세멘트생산실적의 수리정비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 공장의 생산정착화를 믿음직하게 뒷받침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세멘트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할드문데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공장의 일군들은 세멘트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세멘트를 더 많이 생산할드문데 열의를 안고 일터마다에서 헌신적인 투쟁을 벌이고있다.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미덕의 향기 넘치는 사회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이 벌어졌다. 북창철도분국의 각 철길소대원들이 아니라 이곳 철

이것이 화력탄수송에서 첫째로 돌출돼 셋째도 중요한것이 철길강도를 높이는데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용접레루제조공사를 벌이고있다.

북창철도분국에 지회소를 정한 철도성의 책임일군들은 수만명에 달하는 침묵을 이곳 철길구간에 집중시켰다. 들끓는 현실에 내려와 전격의 앞장을 메고 내달리는 화전지휘관들의 투쟁모습에서 커다란 고무발 받은 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여러달이 아니라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만명의 침묵을 교해할 비상한 목표를 내세웠다. 그들은 방대한 작업량을 놓고 굳이 가능성과 현실성을 따지지 않았다. 있다면 오늘의 1분 1초가 그대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의 편승이라는 하나의 자각뿐이었다.

세계사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불멸의 업적

혁명적당건설의 진로를 열어주신 희세의 정치원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17년전 10월의 그날 우리의 행성에 굽어찼던 환희와 격정이 오늘날도 어리어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받들어모신 격동적인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세계 100여개 나라의 출판보도물들이 앞을 다투어 광범히 보도하였다. 130여명의 국가, 정부 및 정당수반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그리고 정당, 단체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보내어왔다.

배우사회혁명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주의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자기 당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할것을 일찌기 결정하였다. 5대륙 방방곡곡에서는 경축의 밤, 문화의 밤, 경축야회, 경축집회, 열광대회, 사진전시회, 강연회, 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연일 진행되었다.

진정 거대한 지구를 뜨겁게 달군 위인칭송열기는 자주시대를 주도하시며 세계지주화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진보적인인류의 열화같은 신비의 정파 다함없는 흥모하는 분출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을 백천의 힘으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며 희세의 정치원로이십니다.》

무릇 돈으로도 살수 없고 강으로도 얻을수 없는것이 위인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감이라고 말한다. 만인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러마르다고 신뢰하는것은 인류의 자주위업에 쌓아올린신 그의 특출한 업적이 그토록 위대하기 때문이다. 혁명적당들의 본보기, 자주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승리의 상징으로 조선로동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불멸의 의력, 혁명적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존함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일찌기 혁명적당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명도적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밝히신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1960년대 국제정세는 참으로 복잡하였다. 두버섯처럼 자라난 현대수정주의가 선행한 수령들의 업적을 힐끔힐 힐끔하며 로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을 외곡 변질시키고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나라 당들에 내리쳐서 로동계급의 단결성과 사회생활전반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고있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당의 지도사상으로 정립하십시오써 우리 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실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표하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높여 인식할대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 당들과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보로 되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혁명앞에 류래없이 간고한 시련이 닥쳐왔던 지난 세기 말엽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에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잊지 못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을 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1980년대말에 와서 이 문제를 올바로 밝히는것은 가장 절박한 문제로 나타났다.

한편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위기와 좌절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나라들은 수십년간 유지하여오던 령도적지위의 상실과 당해산이라는 비극을 감수하지 않

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때인 주제 78(1989)년 10월 26일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쿠바신문 《그라마》 사장을 접견해주셨다. 《그라마》 사장의 건강상태며 주부의 형편 등을 일일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세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며 나라가 분열되고 세계제국주의의 횡용인 미제와 직접 맞서고있는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것은 바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적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당결은 당의 생명이라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당은 반석같은 통일당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어제 그뿐이라. 한 나라, 한 민족의 운명인 아닌 전인류와 세계자주화위업을 떠맡은 한 개인임을 강조하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그처럼 준엄했던 선군혁명 령도의 나날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은 얼마없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사회주의의 과학이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적과업과 우리 당의 초로선》, 《혁명과 건설에서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왜방은 허용될수 없다》,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대 대하여》…

완벽한 철의 료리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은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폭탄으로, 진보적인인류에게는 영광으로 안겨졌다.

국제적규모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 강습, 학습회 등이

활발히 벌어졌다. 세계 혁명적당들은 우리 장군님을 자기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을 필독문헌으로, 당건설과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 혁명적당들이 평양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제시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력사적인 평양선언(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가 세상에 발표된 때를 회상하여 마다가스카르투쟁련합당 총비서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평양선언이 채택되자 세계 수많은 진보적정당들이 선언을(사회주의의 화해)이라고 하면서 앞을 다투어 선언에 서명하였다. 평양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운동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세계 혁명적당들은 공동의 투쟁강령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었다.》

현시기 평양선언은 참다운 사회주의 기치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를 지지하여 서명하는 당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VOA방송까지도 《미국분석가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은 북조선의 탄도미사일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사회주의체제를 부르는 평양선언이 더 큰 위협거리라고 말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미국의 새 세계 전략과 새 국제질서론,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안과 리에 거대한 과밀적재난을 가져올수 있다.》고 견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폭풍이나 눈대기마다에 우리 행성의 중심에 거연히 서서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정의와 사회주의의 수호자이시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당건설업적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본사기자 배규희

진보적인류가 경축하는 10월 8일

◇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10월 8일을 세계 진보적인류가 국제적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10월에 들어와 세계 각지에서 연일 진행되고있는 경축집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행사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을 투철한 사상적전일체로, 통일당결을 확고히 실현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흥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베트남사회주의당 부위원장들은 경축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지난 세기말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가 조선에 집중되던 때에 되었으며 세계 혁명적당들은 공동의 투쟁강령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수 있게 되었다.》

현시기 평양선언은 참다운 사회주의 기치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으며 그를 지지하여 서명하는 당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미국의 VOA방송까지도 《미국분석가들이 미국을 위협하는것은 북조선의 탄도미사일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도 사회주의체제를 부르는 평양선언이 더 큰 위협거리라고 말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미국의 새 세계 전략과 새 국제질서론, 직접적으로는 미국의 안과 리에 거대한 과밀적재난을 가져올수 있다.》고 견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폭풍이나 눈대기마다에 우리 행성의 중심에 거연히 서서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정의와 사회주의의 수호자이시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당건설업적은 우리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어 영원불멸할 것이다.

본사기자 배규희

과 비범한 령도로 우리 당을 불멸의 혁명적당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어머니당으로, 강철같은 규율과 전투력을 지닌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력사는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당은 언제나 백전백승의 력사를 누놓아올수 있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과 더불어 태양의 력사는 영원히 빛날것이다.

지난 10여년간 세계 17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해마다 성대히 경축하고있는것은 절세위인적 사회주의의 운명, 세계자주화위업의 전도를 의탁하고 그이를 마음속깊이 우러르며 따르는 진보적인류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주제101(2012)년 4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조선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갈대 대하여 토의결정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지자》를 발표하시었을 때 세계 진보적인류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받들어모신 상징적인 소식은 온 행성을 위인칭송열기로 끓여버리게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인사들과 출판보도물들은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는 오직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하여 부를수 있는 거룩한 직함이다. 조선혁명도령도자의 저서는 실천에서 그 영감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세계에는 많은 당들이 있다. 하지만 그 력사와 전통은 서로 각이하다.

지난간 력사를 돌이켜보면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기 못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집권당이 하루아침에 몰락은 담백처럼 무너지고 사분오열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자기의 기복에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아로새겨왔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탁월한 사상리론

그이의 사랑은 만사람을 울린다

선군의 빛발로 인류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시대를 진감시킨 희세의 전설적위인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사랑으로 만사람의 심장을 뜨겁게 덥히고 친화할 한몸에 안오신 인간사랑의 최고화신이시었다.

주제 85(1996)년 어느 날, 우리 일꾼들의 안내를 받으며 고령의 로씨야로인하여 로씨야주에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정갈하고 아담하게 꾸러진 방으로 들어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도그렇듯이 방에 는 생일 85축을 맞은 그의 생일상이 마련되어있었던것이다. 문에다 생각지 못했던 생일상을 받아들인 그는 크나큰 경이감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벽차 오는 가슴을 달래며 생일상에 갖는 사연을 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안해도 없이 생일을 맞는다는데 생일상을 잘 차려서 보내주라고, 대해 조선에 와서 치료도 받고 여생을 즐겁게 보내도록 해주라고 하시면서 여러가지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던 것이다. 그는 바로 니콜라이 라렌코였다.

(이름 없는 이 로병을 김정일장군님께서 헤아려 주시더니... 김정일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웃으시며는 눈물을 겹잡지 못하는 그의 눈앞에는 조선이 해방된 후 자기가 평양에서 사 일하던 시기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기 위하여 그의 저택으로 찾아가는 때마다 자기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던 어리신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상상하 안겨졌다. 그 잊을수 없는 위인의 인정이 넘치는 손길이 인생 말년에 이룬 때에도 자에게 끊임없이 미치고있는것이였다.

그는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그리워 하였다.

“내가 심장을 다 바쳐 청송 해야 할 위인은 바로 조선의 김정일동지이시다.”

그만이 아니다. 이 말리도 의 장가처럼 열려야 할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생일축하연에 참가하여 그

가 그토록 사랑하던 어머니의 조각상을 생일선물로 받아안고 어련애처럼 울고 또 울었다.

한 평범한 외국인의 속마음까지 헤아리시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은 인간애에 매혹되어 그이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었 고. 주부의 한 어학전문가의 갖 난애기의 이듬에도, 프랑스의 기 두르트, 오스트리아의 한스 클레 카츠키의 가정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들고 고결한 인성의 세계가 비기웠다.

우리 어찌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놓아오신 인간사랑의 가지가 자기의 아이기들을 이 작은 지면에 다 담을수 있겠는가.

정령 사상과 제도, 괴부학과 국적, 민족을 초월하여 수많은 외국의 벗들에게 베풀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전설같은 믿음과 사랑은 만사람을 격동시키고 온 세계에 위인홍무의 열풍을 더욱 세게 불어넣어주고있다.

우리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낳은 위대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정감—김정일동지! 이 호칭은 인간적수양에 있어서 최고의 년장자이시고 숭고한 인품미로 만민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온 세상 인류의 절대적인 흠모심과 최대의 존경심을 한마디로 함축한 위인칭호의 정화이다.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인간미로 인간을 화원하는 아름답게 장식 해가시는 희세의 인간원로—김정일동지를 모심으로 하여 세계에는 새로운 인간전화의 력사가 펼쳐지고있는것이이다.》

그렇다. 가장 고결한 인간사랑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는 우리 장군님이기애에 사랑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종만된 사상리론을 내놓으시고 정치도 위대한 인덕정치로 펼쳐지셨다. 한평생 인간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영원한 위인전화의 송가야 더불어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김 국 철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어떻게 해서나 조선봉건정부를 가라앉고있음을 대한 비밀훈령을 받고 서술에 기여는 미우라는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내뻐한 후 황후를 살해하기 위한 용 악한 음모를 꾸미었다. 미우라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달도 못가서 깨끗이 사라질것》이라고 떠벌린것만 놓고보아도 일제가 이 사건조직을 얼마나 중요시 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1895년 10월 8일 미우라의 총지휘하에 드디어 피비린 황후살해극의 막이 올랐다. 이날 이른 새벽 광화문부근에 집결한 수백명의 일본살인악당들은 혼란때를 앞장에 내몰아 황궁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와 총격전을 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광화문을 열어버렸다.

일제살인자들은 황후를 찾아내기 위해 침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황후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있던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이 있는 방문들을 찾아내며 궁녀는 그들을 잡아 머리를 죽이고 대청마루에 끌어다가 마구 죽였다.

황궁은 샅샅이 일제살인자들의 살인, 파괴의 판무장으로 변하였다. 살인범죄에 의해 황후도 끝내는 많은 궁녀들과 함께 칼에 맞아 쓰러졌다.

일제의 죄행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우리들은 칼에 맞는 황후를 재빨린 후 숨에 제 거르지 않은 것을 일제에 들들 말아 미리 준비하여놓은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버렸다.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 다 버려진 황후의 유골마저 못속에 집어던지었다.

당시 조선봉건정부 고문이었던 이시즈는 일본법제국장으로 보낸 보고서에 《살인범들인 데라자기(본명 다카하시 겐조)를 비롯한 일본인들이 참살한 황후를 끌어내어 이틀 버려버렸군... 그들을 들춰내 버렸다.》고 썼다.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황후를 학살한 일제는 범죄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한것과 혼란때에 넘겨져 모든 저들은 다한 《국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을뿐이라고 내외여론을 기만하였다.

사건당일로 일제의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은 온 서울장안과 찌리르코야를 비롯한 서울주변 각국 외교대사관에도 퍼져나갔다. 그후 일제에 의한 황후살해사건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져졌으며 세계도처에서 일제를 규탄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찌리르코야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적지원을 더욱 확대강화할 목적을 가지고 무슨 《조사관》을 파견하여 황후살해 만행의 주도자인 미우라를 비롯한 사건

다함없는 흥모, 열화같은 신리의 정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지도리념은 주제사상, 당의 지도방법은 주체의 요구대로!

이것은 베인혁명당(당시의 창건자였던 알리 후두와 성원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굳은 신념이었다. 하기에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당의 명예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하였 고. 우리 장군님께 드리는 《베인혁명당 명예위원장증서》를 전달하면서 알리 후두는

대학의 기념메달이 제정된 사연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종합대학의 한스 페서는 철학교수로서 오래전부터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을 열심히 탐독해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제사상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으며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나아가길 갈을 환히 밝혀 주시고는는 그이께 완전히 매혹되게 되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이렇게 태어났다.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인 류사상사를 빛내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대학에서는 인스브루크종합대학학림 300송기년

벗들의 혁신

수정공에 《말》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찬성 70축을 맞으며 쿠웨이트 알 오스만일 반무력 및 청부회사그룹에서 울린 선물이다.

기술로 된 판수에 감기를 날리며 왼쪽앞발로 지구를 형상한 황색의 수정알을 뒤편서 멀리 앞을 바라보며 역세게 서서 한마리의 말을 형상하고있다.

여기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쿠웨이트사람들의 끝없는 흥모와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리사장은 옛날부터 맡은 역

메달을 우리 장군님께 맨 처음으로 드리었다.

이때부터 대학에는 세계사화 과학발전에게 기여한 명망 높은 인사들에게 이 메달을 수여하는 제도가 새롭게 세워졌다.

센 힘과 기상, 아름다움과 자유를 상징하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 사회주의를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나가는 모습을 선물로 담아보고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었지만 그이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강성 국가를 건설하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해나 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과거죄악은 절대로 덮여버릴수 없다

력사에 대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타민족에 대한 살륙만행을 저지른 전범국들의 죄행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일제가 조선에서 강행한 인간살육만행은 그 간악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력사에 《울미사변》으로 알려진 명성황후살해사건도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119년전인 1895년(음력미) 10월 8일에 있는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일본인 기쿠찌가 후날 자기의 편지에 남긴 고백자료가 있다.

《선혈로 물든 민비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랐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었으며 참으로 귀족후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

이날 일강도 일제는 총칼을 빼들고 조선봉건정부를 황궁을 습격하여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일제강점국 제법도 인륜도덕도 모르는 포악무도한 살인마무리였음을 날같이 드러내놓았다.

19기말 조선봉건통치배들의 극심한 외세의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령강들의 침해에 각축전장으로 변하였다. 청일전쟁의 결과 일제는 조선에 서 청나라세력을 밀어내고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배권을 확립할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반일투쟁이 강화되면서도 하여 일제의 야망대로 되지 않았다.

한편 찌리르코야가 조선봉건정부를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명성황후와 결탁하여

우리 나라에 세력권을 뻗이기 시작하는것은 조선침략야망에 틀어박힌 일제에게 있어서 큰 라적이 아닐수 없었다.

찌리르코야를 끌어들이어 일본을 견제 하려고 하는 명성황후를 그냥 살려두면 대조선침략계획이 파탄될수 있다고 여 기 일제는 명성황후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고 실천행동에 들어갔다.

일제는 명성황후암살계획의 책임자로 명성중장기 미우라 고로를 내세우고 이 자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조선봉건정부를 가라앉고있음을 대한 비밀훈령을 받고 서술에 기여는 미우라는 우리 나라의 정치정세를 내뻐한 후 황후를 살해하기 위한 용 악한 음모를 꾸미었다. 미우라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나라(조선)에서의 우리의 세력은 몇달도 못가서 깨끗이 사라질것》이라고 떠벌린것만 놓고보아도 일제가 이 사건조직을 얼마나 중요시 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1895년 10월 8일 미우라의 총지휘하에 드디어 피비린 황후살해극의 막이 올랐다. 이날 이른 새벽 광화문부근에 집결한 수백명의 일본살인악당들은 혼란때를 앞장에 내몰아 황궁을 지키고 있던 시위대와 총격전을 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광화문을 열어버렸다.

일제살인자들은 황후를 찾아내기 위해 침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황후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있던 살인악당들은 궁녀들이 있는 방문들을 찾아내며 궁녀는 그들을 잡아 머리를 죽이고 대청마루에 끌어다가 마구 죽였다.

관계자 수십명을 우리 나라에서 빼내어 히로시마감옥에 임시(다음)하는 기만적 인 농음을 벌려냈다. 그러나 1월에는 《증거불명》의 리유로 그들전원을 무죄 석방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제야무리 발뻠하려고 획책하였어도 황후살해계획의 직접적인 작곡자, 집행자로서의 저들의 죄행은 결코 감출수 없었다.

이 모든것은 《울미사변》의 주범이 다름아닌 일본정부이며 전대미문의 이 태로사건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독점적배를 실현하기 위한 침략의 전주목 이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후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파쇼강점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쳐왔다. 수많은 조선청장들이 일제에 의해 죽음의 고역장군과 전장터들에 끌려가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거나 총알비리피고 불태워 죽어갔다. 20만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여성들을 강제연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성노예로 만들었다. 경악을 자아낸 일제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력사의 한페이지에 생생히 기록되어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69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한 사회와 배상승려된 그 책임을 한사코 벗어날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청산문제에서 그 어떤 옹기박수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력사는 절대로 덮여버릴수 없다.

김 철 룡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력강화조치

로씨야에서 최근 국방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1월 이 나라 육군총사령관은 2020년까지 5 000대의 신형 장갑기갑차들과 6 000대의 현대화된 장비들이 류군에 돌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류군의 70%가 현대적인 전투기갑기갑차들로 장비되게 된다고 한다. 한편 로씨야가 방위력 강화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쏟고있다. 최근 크라스노다르지방에서 《C-400》대공미사일총합체들과 《번져리-C》대공미사일-포총합체

범죄가 판을 치는 암담한 사회

9월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마이아미시의 한 유흥장에서 일어난 총기류범죄로 15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9월 27일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에서는 학교구내에서 학생이 총을 쏘아대며 판동을 부렸 다. 한편 9월 30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시교외의 한 살림집에서 중년부부사이의 다툼질곡에 의해 자기 남편을 총으로 쏘아 무참히 살해하였다고 한다.

성행하는 총기류범죄 방치대책을 요구하는 미국인들

포도술을 만든 사건만 해도 20여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최근 이 나라 경찰당국은 포스카나주에서 고공모도술 상표가 붙어있는 29만병의 저품질포도술이 압수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과 2009년에 이 주에서 불순물이 섞인 가짜 성행하는 총기류범죄 방치대책을 요구하는 미국인들